

코이노니아의 구약 성서적 이해*)

강 사 문

(교수 · 구약학)

I. 들어가는 말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란 말은 바울이 이방선교를 위해 채용한 회합적 토착용어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로마(*Greco-Roman*) 문화권에서 물질의 공동소유나 사업상의 동업자나 신과 인간과의 교제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역본에 따라 4가지로 번역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① 친교(*fellowship*-1946년도 RSV), ② 참여(*participation*-RSV 각주), ③ 교제(*communion*-1989년도 NRSV), ④ 나눔(*sharing*-NRSV 각주) 등이다. 코이노니아의 신학적 의미는 주후 50년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짐하고 신앙의 원리를 교훈하는 과정에서 이 코이노니아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신약성경에 코이노니아가 19회 나타나는데 그 중에 13회가 틀림없는 바울서신에 사용되었고 코이논(*κοινων*) 어군이 38회 나타나는데 그 중에 22회가 바울서신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코이노니아란 용어는 바울에 의해서 성서적 의미를 갖게 된 선교용 토착어임을 알 수 있다.¹⁾

*) 이 글은 제 4회 예장 바른목회 실천협의회 전국 목회자 수련회(1994.6.2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가감한 것임.

1) John Reumann, "Koinonia in Scripture : Survey of Biblical Texts", WCC Fai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Santiago, Spain, August 1993), Document No 5. 3쪽.

이 특수용어가 구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교훈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²⁾ 회람화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이 용어를 채택함에는 특수한 선교적-신학적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미 회람 문화권에서 플라톤과 같은 철인들이나 사상가들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사용하여 공동소유를 목표로 하는 이상적 국가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러나 회람세계에서는 이상론으로만 끝났지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코이노니아 개념을 선교현장과 교회에 도입하여 이상적 교회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글에서는 바울시대의 교회공동체에 크게 이바지했던 코이노니아 개념과 같은 구약의 개념이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 보는 데 목적이 있다.

II. 구약 70인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구약성경의 회람어 번역본인 70인경에는 코이는 어군이 나타나는데 주로 후대 작품인 지혜문학이나 제2경전(The Second Canonical Books)에 주로 쓰이고 있다.³⁾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칠십인역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 나타난다.⁴⁾ 레위기 6:2

2) 위의 책, 5쪽 이하.

3) 코이는 어군은 구약에 46회, 신약에 73회 나타난다(J. Reumann, 앞의 책, 3쪽). 이 어군은 코이노니아를 비롯하여 동사인 κοινωμεω, κοινωσειν이 나타나는데 가까운 우정(벧시락 13:1)이나 적대자들간의 불가능한 친교(벧시락 13:27) 등으로 구약에 5회, 외경에 7회가 나타난다. 명사인 κοινωτος는 절친한 친교(벧시락 6:10; 41:19; 42:3)나 친구란 의미로 사용되고, κοινωνισος는 구약과 외경에 각각 3회씩 나타난다(F. Hauck, TDN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84), 800-801쪽). 신약에는 코이는 어군이 많이 쓰이는 반면 같은 뜻으로 고대 회람 비문이나 파피루스에는 메텍소(μετεχω)가 주로 쓰인다(오우성, "신약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회와 코이노니아, 대한기독교서회, 1993, 한국 기독교학회 편, 164쪽).

4) Reumann은 3회 나타난다고 한다(앞의 책, 3쪽). 한편 TDNT(앞의 책, 800쪽, 주25번 참조)에서는 1회로 나타난다. 역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A. Rahlfs 편집, 1935년판 70인역에서는 1회가 나타난다.

(히 5:21)에 ‘맡겨진 것’(that which is deposited)이라는 말의 의미상의 번역이다. 그런데 ‘테스메트 야드’의 문자적 의미와 코이노니아란 뜻과는 거리가 멀다. LXX역자에 의하여 ‘*κάνωνία*’로 번역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람어역(Targum)에서 “테스메트 야드”가 수타푸트 예다(שׁוּתָפוּת יֵדָא)로 번역되어 즉 여러 주주에 배당된 몫이란 뜻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LXX 역자가 코이노니아로 번역한 듯하다.⁵⁾ 그리고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서 8:18에 지혜와의 코이노니아(교제)와 마카비 3서 4:6에 ‘*κάνωνίαν*’란 말이 나타날 뿐 코이노니아란 어휘가 구약성서적인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란 말은 구약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주로 Chaber란 어휘가 Koinon, Koinonos 등으로 번역된다.

그리스-로마 문화권 속에서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 친교, 협조, 구체, 관계, 관대함, 도움, 참여, 나눔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낱말의 뜻은 상호간의 관계, 즉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적 관계에서는 계약, 공동소유나 소유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친교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란 대체로 물건, 사람, 신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쓰여졌다.

신약성경에서도 코이노니아란 말은 참여, 교제, 사귄, 동정, 동무, 연보, 나눔, 공급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참여(15회), 교제(14회), 구체(6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⁶⁾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즉 교회론으로 집약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코이노니아가 구약성서적 용어는 아니지만 구약 어휘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구약의 본래어(vorlage)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약적 코이노니아와

5) TDNT, 800쪽. 이방인 사회에서 유대인은 사업의 동역자(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금지되었다(산헤드린 B. 63b).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제한되었다.

6) 오우성, “신약공동체의 코이노니아”, 173-174쪽.

같은 의미의 구약적인 개념들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코이니노아의 구약 대칭어인 ①카베르(חבר), 처음 두 철자의 순서가 바뀐 ②바카르(בכר)와 ③브리트(ברית) 등 3개의 용어들을 검토함으로 코이니노아에 대한 구약 성서적 이해를 하려고 한다.

첫째 용어인 카베르는 동무, 동맹원, 연맹 등의 의미로 LXX역에서는 코이니노아로 또는 코이는 어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용되지 않고 전적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다루는 데 사용되고 혈연공동체 회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차 자기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타민족이나 타부족과는 달리 공동운명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관계가 아니지만 다윗의 카베르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마력적인 힘(우상)과 연계된 자를 말하기도 한다(신 18:11).

둘째 용어는 바카르란 용어로 선택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부여받은 자란 뜻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당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방에 빛을 발하기 위하여 포로로까지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선민의 삶이다.

셋째 용어인 브리트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차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존재 의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할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III. 카베르(חבר)에 의한 성도의 교제

LXX역에서 카베르란 단어가 8번 코이는 어군으로 번역된다.⁷⁾ 카베르의 뜻은 밀접한 교제, 연합, 동료회원 등으로 쓰인다. 대하 20:35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의 교제로 이해되었고, 솔로몬의 지혜서 8:18에서도 지혜와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낼 때, 즉 악과 친한 사이, 조강지처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 코이노노스(카베르)라고 한다(욥 34:8; 사 1:23; 잠 8:24; 말 2:14).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뗄 수 없는 성적 상대자들도 카베르라는 의미로 후기에 사용되었다.

위의 범례에 따르면 카베르란 어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사용되지 않고 친구나 동료 상호간에 쓰이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관계는 카베르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에베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종이란 전적으로 주인에 예속된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인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섬김과 봉사가 자랑이라기보다는 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겸손한 자세로 철저한 섬김만이 하나님께 대한 종의 자세이다.

그러나 카베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방신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표시하는 즉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호 4:17). 신약에서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와의 밀접한 관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였고(고전 1:9; 고후 13:13), 필로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리킬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행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Sacral Fellowshipship)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입장하고 제단에 드린 제물의 향내를 맡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머지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회원들간의 교제(Communion)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다. 출 24:9 이하는 카베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제사에서 하나님

7) 레 6:2; 잠 21:9; 25:4; 28:24; 사 1:23; 말 2:14; 시 119:63; 욥 34:8 (Elmar Camilo Dos Santos, An Expanded Hebrew Index for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Dugith Publishers Baptist House, Jerusalem, 57쪽).

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다.⁸⁾

이스라엘 백성간의 관계는 피차 주종의 관계가 아니므로 주종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의 소유자이므로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이 이행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종의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6년 후에는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출 21:1-11과 신 15:12-18에서 종에 대한 해방을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같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정신은 인간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전도서 9:4에서 카베르는 참여한 자 또는 동료와 같은 의미로 회원간의 결속을 뜻한다. 후기 유대문학에서는 카베르가 유대인의 식탁친교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금요일 저녁 밥상공동체 회원을 가리켜 브네 케브라(카베르의 자녀들)라고 불렀다. 이런 형식은 유월절 만찬에서 더욱 의의를 두었고 후에 기독교 성만찬 예식의 전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참여자가 전부 서로 깊은 친교를 갖게 된다.

라비문학에서도 카베르가 친구, 동료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특히 신앙공동체의 경건한 자들을 가리켰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에세네파나 쿨란공동체 사람들을 가리켜 카베르라고 불렀다. 요즘 이스라엘 키브츠 회원을 가리켜 카베르라고 부른다. 운명공동체의 경건한 동료들을 말한다.

시편 119:63에서는 율법에 충성하고 주의 법도를 잘 준수하는 자를 가리켜 카베르라고 하였다. “주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와 나는 카베르(친구)이다.” 여기서 LXX역은 코이노스 대신에 메토코스로 번역한다.

주후 2세기 유대 사회에서 카베르는 라비 연수교육을 받은 자들이 라비 안수를 받지 않을 경우 이들을 카베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카베르의 의미는 주로 사람들 사이에 친교나 교제 뿐만 아니라 교제

8) R. de Vaux, *Ancient Israel: Religious Institutions* (New York, 1965), vol. 2, 455쪽 이하.

맺은 동료, 경건된 친구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는 신앙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을 나타내는 용어였지만 바울에 의해 이방선교와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까지 사용되었다.

IV. 바카르(בַּחַר)에 의한 사명의 삶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선택하다’란 바카르는 세속적, 또는 종교적 의미로 다 사용된다.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 이스라엘 지도자나 백성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 피선택자의 어떤 특권이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되어진 것이다. 이 선택에는 책임과 사명을 수반한다.⁹⁾

신 7:6-11에 이스라엘의 선택 동기와 피선택자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들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 너희를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그를(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 너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무엘상 2:28 이하에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백성을 대신해

9) Seebass, “בַּחַר”, TDO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75), ed. by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tr. by J. T. Willis, vol. II. 87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망각했을 때 엘리 가문이 망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나기드)를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왕의 선택도 같은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신 17: 14-20). 그래서 왕의 선택이란 맥락 속에서 다윗 왕 이후의 왕들에 관해서는 선택(바카르)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윗 이후의 왕들은 선택자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왕상 8: 16이나 왕상 11: 34에서 하나님에 의한 다윗 왕의 선택은 선택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신 곳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을 사랑과 은혜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택자의 뜻을 따라 세계 만민에게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포로 중에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방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피선택자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카란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기본적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의 결과로 주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계성을 말하는 것은 야다(지식)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피선택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피차 차별이나 우월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뿐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동참이나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 감사의 발로가 사명으로 주어진다.

선택의 가시적 표시는 왕권(Kingship)과 성전(Temple)과 땅(Land)이다.¹⁰⁾ 다윗 왕권의 수립은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0) R. E. Clements, 구약신학, 김찬국 역(대한기독교서회, 1989), 93쪽 이하; W. Zimmerli, 구약신학, 김정준 역(한국신학연구소, 1984), 56쪽 이하.

제도이다. 왕권의 존속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능이 살아 있음이고, 멸망은 선택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기능을 수행케 하셨다.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으로 이해되고 성전의 기능이 끝난 셈이다. 특히 땅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뜻을 수행하는 한에서는 그 땅 위에서 살 수 있고 그 뜻을 거역할 때는 땅에서 떠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갈 수밖에 없었다.¹¹⁾ 위 3요소는 곧 선택자의 뜻에 따라 피선택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들이 되었다. 선택된 자들은 여러 비유로 설명된다. 피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여호와 군대로서의 사명, 여호와 종으로서의 사명,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삶의 환경이 바뀔 때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제도(아버지와 아들), 유목생활(목자와 양), 전쟁터(용사-군대), 산업사회(토기장이-그릇)의 은유로서 선택자와 피선택자의 관계를 설명한다.¹²⁾

그러므로 선택이란 범주 속에서 피택자는 모두 평등한 상태로 오로지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만 피택자의 의의를 느낄 수 있고 피택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V. 브리트(ברית)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계약의 백성이란 의미 속에 우선 백성(암)이란 단어는 셈어에서 친족관계,

11) W. Brueggemann, 성서로 본 땅 (나눔사, 1992), 159쪽 이하.

12) 손석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성광문화사, 1991), 27쪽 이하.

씨족관계, 가족관계로 이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 씨족이다.¹³⁾ 그러나 계약에 의한 하나님 백성의 맥락을 분석해 보면 단순한 부모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부족이란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되어진다(출 19:5-6; 신 7:6; 렘 11:2-5; 겔 16:8). 계약의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혈연, 인종적 우선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성과 관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인식하는 데 있다(레 20:26; 22:16; 신 14:2; 26:19; 28:9 등). 출애굽한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부족 외에도 중대한 잡족(출 12:38)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신앙에 의해 구성된 백성이란 뜻이다. 출 19:5-6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계약의 백성)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The Holy People)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호 2:23; 스 8:8; 렘 31:33; 계 21:7). 이런 쌍무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은 남편과 아내, 농부와 포도원, 목자와 양, 주인과 종 등등의 비유로서 계약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과 사명을 촉구하고 있다.¹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민족이나 영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개념으로, 그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계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그의 소관이다. 신 7:6-8은 이런 생각을

13) 이형원, “하나님의 백성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구약성서적 제언”, 교회와 코이노니아(대한 기독교사회, 1993),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0, 120-121쪽.

14) 로랄드 E. 클레멘츠, 구약신학, 100쪽 이하.

잘 표현한 신앙고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다 준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고(창 12:3),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계약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신 7:11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한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으로는 십계명(출 20:1-20), 계약법(출 21:1-23:19), 성결법(레 17-26장), 신명기법(신 12-26장)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계약법의 내용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신앙적인 것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는 윤리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적인 요인과 윤리적인 요인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기능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¹⁵⁾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유지되는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성민의 사명의 내용을 손석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¹⁶⁾

- 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다(출 33:16; 레 26:11; 레 1:44-45).
- ② 이웃에 대한 봉사이다(출 19:6).
- ③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사명이다(사 41:8; 44:1-8).

15) W.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1961), tr. by J.A.Baker, vol. I. 74쪽 이하; W. Harrelson, *The Ten Commandment and Human Right* ((Philadelphia, 1980), 51쪽 이하; D. J. McCarthy, *Old Testament Covenant; A Survey of Current Opinions*(Richmond, Virginia, 1972), 10쪽 이하.

16)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성광문화사, 1991). 268-273쪽.

사 43 : 10에서 증인의 사명을 독려한다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ʾēd),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사명 뿐 아니라 만민과 만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명의 삶을 요구한다.

1. 시대별 계약의 공동체적 삶

코이노니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할 때 구약에서도 계약의 백성은 계약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백성들은 상호간에 연대적 책임을 감수하는 삶이므로 시대별로 어떤 공동체적 삶이 나타났는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족장시대의 혈연공동체적 삶

족장시대의 공동체적 삶은 가장을 중심으로 한 씨족단위의 혈연공동체다. 가장의 보호 아래 형제애를 나누며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다.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사회인고로 개인 소유의 땅이나 주택은 없었다. 가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제 우애를 나누며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기능을 했다(창 12 : 1-3). 가족 단위의 형제들간에 간혹 갈등이 있었으나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했고(창 32장), 요셉과 그 형제들은 요셉의 관용에 감탄하기도 하였다(창 50 : 20). 그러나 부족원들이 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면 생존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이런 혈연 유대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과부, 고아, 떠돌이(ger)로 구분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웃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다.¹⁷⁾

17) 장사문, “재산에 대한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9집(1993), 222쪽 이하.

과부인 경우는 시혼제 결혼으로 구제책을 시도하였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부모의 사망으로 고아가 된 자들은 부족의 적극적 관심으로 보호되었고 전 부족의 전멸로 떠돌이가 된 자들도 이웃의 적극적 관심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개인소유가 없었으므로 최소한 부족 내에는 소유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이 없었다. 빈익빈이나 부익부라는 갈등구조도 없었다. 혈연 운명 공동체이므로 모두가 형제 자매요 한 조상의 후손들이다.

(2)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시대의 신앙공동체적 삶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공동체로서 사명을 다짐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애굽의 군주제와는 달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외에 백성들간에는 상호 구별과 차별이 없는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통치 아래 있었고,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신 17:14-20).

모두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식물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으므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재산상의 갈등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게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공동체 삶이었다(출 16:17-18).

폴 헨슨에 의하면 가나안 정착단계에 신앙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재하는 신앙적 힘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적 신앙적 구조나 가치체계를 견고히 하는 데 공헌한 자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의 구조나 가치체계란 땅을 공정하게 분배한 채무자, 과부, 고아 등 소외자들을 보호하는 것,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노예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출 21:1-11; 신 15:12-18; 레 25장).¹⁸⁾

18) "Community: Old Testamen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 ed. D. N. Freedman (NY: double day, 1992), 1100-1101쪽.

그러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공동체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정의와 평등의 사회였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거의 없다. 늘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았던 때로 평가된다.¹⁹⁾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신앙공동체가 평준화된 농촌사회였다는 것은 성경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이 시기에 농촌 주택 구조가 균일했음에 비하여 그후 왕정시대에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주택 크기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심했음을 보여준다. 여로보암 2세(주전 787-747) 때가 극에 달한 시대였다.

여기서 지파간에 공평하게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각 지파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 25:23에 의하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땅은 영구히 판매가 금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님으로 주인과 함께 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아합 왕과 나봇의 이야기에서 아합왕이 나봇의 땅을 팔라는 요청에 대하여 나봇의 대답은 이 포도밭은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의 소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왕은 누명을 씌워 그 밭을 몰수했다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물론 지파간의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땅을 잃고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팔린 땅을 되살 수 있는 고엘(goel)제도가 있었다. 가장 비근한 예는 보아스가 남의 손에 있는 나오미 집안의 땅을 다시 샀고 따라서 나오미 집안 소유인 룯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파 소유 땅의 이동을 막고 땅을 보호한다는 근본 취지는 땅의 원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족장시대에는 땅과 같은 일정한 고정재산이 없었으나 가나안 정착

19) M. Weinfeld, "The Period of the Conquest and of the Judges as seen by the Earlier and the Later Sources", VT 17(1967), 111쪽.

시대에는 고정된 땅이 공평하게 안배되었고, 그 다음엔 부족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지혜로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지파간의 소유의 한계는 하나님에 의해 공평하게 정해졌다는 것이고 타인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신 19:14)는 말은 하나님에 정해진 한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이웃의 땅은 물론 하나님의 땅 소유권까지를 침범한다는 말이다.

(3) 왕정시대의 불신앙공동체적 삶

사사기 말엽부터 백성간의 평화는 유지했지만 외부 민족의 침입은 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부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의 왕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결국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행위로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정의의 신앙공동체 구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 같은 몇몇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왕국 전의 신앙공동체를 와해시켰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불균형을 조장시키는 데 우를 범한 셈이다.

다윗왕국 출현과 함께 공동소유 재산은 사유재산 형태로 탈바꿈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약속의 땅은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땅의 분배 균형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각 지파에 속하지 않은 땅, 즉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땅은 판매 소유가 가능했다. 우선 다윗 왕은 그의 왕국 수도로 삼을 예루살렘 성의 여부스 족속을 내몰고 그 성을 차지하였다(삼하 5:6~ 이하). 그 외에도 여러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십 세겔로 사고(삼하 24:24)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터로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번 사유지주가 되었고 재산 사유화의 창시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얻은 땅을 경작 관리하고 궁전을 보호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인건비와 기타 많은 재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모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억압에 의해 왕정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요담의 이야기(삿 9:7-15)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우화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군주의 출현으로 권력에 의한 재산의 편중이 심화되어 권본주의(權本主意)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자급자족에서 도시화로 인해 물물교환의 시장경제가 나타나면서 부의 사유화 편중을 가속화시켰다. 초기 이스라엘 생활이 유목이동의 생활이었다면 왕정시대에는 도시정착 시대였고, 과거에는 씨족윤리라면 이제는 국가윤리 체제로 전환되어 있는 자의 지배층과 없는 자의 피지배층으로 종속관계가 형성되었고 과거의 혈연 연대의식이 와해되어 카베림(형제)을 타인으로 간주하는 비인간화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Capitalism) 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은 빈부격차가 극복되고 사회,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왕정 말기에 시드기야 왕은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5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회년(Jubilee year)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렘 34:8 이하). 그러나 이런 국가적 조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정이 막을 내리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주전 586년).²⁰⁾

계약법과 신명기법은 이런 불신앙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 중에 5개의 약자와 빈자를 위한 규정을 살펴본다.

① 도적질하지 말라(출 20:15; 신 5:19).²¹⁾

권세 있는 자나 힘 있는 지배자들은 주로 재물을 수탈하는 자들이다. 이들처럼

20) 강사문, 앞의 책, 224-225쪽.

21) W. Harrelson, 앞의 책, 135쪽; 강사문, 앞의 책, 236-237쪽.

정당한 재물취득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자들은 모두 도적이다. 엄격히 말하면 소유주인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아담과 이브는 남에게 위탁도 되지 않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훔쳐 먹은 첫번 도적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후반부는 전부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금지령이다.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는 것이고, 도적질은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이웃의 집, 아내, 남녀 종, 소와 나귀 등 남에게 위탁된 재물들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의 발을 침범치 말라(잠 23:10)는 등의 남의 재물을 침해하지 말라는 금지계명의 근본 의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재물을 증식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고통이 오고(잠 15:6)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잠 21:6). 정당한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잠 16:8)고 한다. 예언자들은 빈자의 대변자로 도적질하는 자들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바울은 도적질한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권고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을 선호하여 사회를 부패케 하고 피해를 당한 많은 빈자를 속출케 한다. 사회의 빈자는 주로 인재(人災)로 나타난 셈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빈자나 약자를 도와서 너희 중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고 규정한다.

② 빈자의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 (출 22:25).

이 조항은 이스라엘 백성 중 빈자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다. 하나님은 빈자의 보호자이고 빈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이므로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빈자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높은 이율의 이자는 더욱 안 된다(잠 28:8). 더욱이 하나님은 이자를 받는 자를 저주하고(겔 18:8-17),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였다(느 5:1-13). “너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너는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말고 이자도 요구하지

말아라”(출 22:25)

③ 빈자의 담보물을 돌려주라(출 22:26-27).

“네가 만일 이웃의 겹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 몸에 가릴 것이 없으니 이것은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신명기법에서는 빈자의 생존과 관계되는 옷과 밧들은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신 24:6-17). 담보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 없다(신 24:10-11). 그 이유는 채무자의 인격과 자존심을 최소한 보호함에 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다(암 2:8). 따라서 계약공동체 내에서 타 구성원의 경제적 고통을 주는 대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신명기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구성원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은 형제(라아)이기 때문이다.

④ 약자를 보호하라(출 22:21-24).

“너는 이방인 떠돌이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음을 기억하라. 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나(하나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여기에 나타나는 과부와 고아, 떠돌이는 이스라엘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소외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보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특별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신명기 24:19-22에 “각종 추수 때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줍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를 위해 내버려 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포도를 딸 때도 같은 방법으로 빈자들이 먹을 것을 좀 남겨 둘 것을 교훈하고 있다. 밭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므로 밭의 사용자가 관용을 베풀어 생산물 일부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함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⑤ 3년에 1회씩 십일조를 내라(신 14:28-29; 레 19:9-10).

신 14:19-22에 의하면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네 성중에 거하는 떠돌이,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 삼년에 한 번씩 구

제해를 설정하여 재산분배를 못 받은 자들과 소외자들을 십일조를 통하여 구제하였다. 있는 자의 힘껏 나눔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재물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절대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가 평등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존한다.

(4) 포로 후기의 유대 신앙공동체적 삶

포로기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는 사명을 띤 신앙공동체로서 간주되었다. 포로생활의 억압과 부자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불신 공동체의 심판이라는 사실로 그들의 생활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곳까지 온 그들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서 살았다(사 60:1-3). 이방세계에 공의를 세우며(사 42:4),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사 43:12). 특히 수난의 종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사 53:1-11)을 그들의 사명으로 자각했다.

이 시대는 피지배하에 모두가 소유를 잃은 상태이므로 삶은 무소유형의 공동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전 6세기 이후 바벨론의 지배 이후 계속되는 외국의 지배하에 유대공동체는 피지배인의 생활로 일관되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은 모두 무소유자로서 바벨론의 사막에서 생명을 존속시켰다. 포로귀환과 함께 돌아온 자 역시 무산자일 수밖에 없다. 본토에 남아 있던 자들도 황폐된 농촌과 도시에 겨우 생존을 지속시켰을 뿐 온 유대공동체는 빈자의 삶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왕정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사라졌다. 모두가 빈자이므로 빈자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 반대로 지배자인 외국인들은 우상을 좇고 불경건한 자들로 인식되었다(사 63:9 이하). 이렇게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방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 주신다(삼하 31:39; 렘 50:4).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안정과 부를 축적한 계급이 생겼으니 이들은 사제계급이다. 이들은 제정일치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

전반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종교세를 받음으로 부를 향유할 수 있었다. 이 종교지도자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공동체가 계약의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 신앙공동체로 존속했던 시대도 있었고 불신앙공동체로 존속했던 시대도 있었으나 불신앙공동체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약정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가 보여주는 계약공동체 삶의 교훈이다.

VI. 맺는 말

구약성경에는 코이노니아란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에 상응하는 삶을 목표로 한 것을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제(카베르)라는 개념이다. 카베르라는 공동체 회원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운명공동체로서의 교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카베르라는 말은 동료라는 뜻으로 혈통을 초월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이다. 요나단과 다윗이 카베르의 관계였다는 것은 친형제 이상으로 우정을 돈독히 했다는 것을 말한다. 운명을 같이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구약성경에서 카베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쓰이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맥락에서 코이노니아의 사용은 바울로부터 신약성경에서 본격화된 것이다.

둘째는 선택(바카르)이라는 개념이다. 선택은 하나님에 의한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기인하는 것이다(신 7:6-8). 어떤 특권이나 장점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피선택자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같은 인간의 존엄과 대우를 받는다. 다 같은 형제 자매이므로 백성들간에 우열과 상하가 없다. 동시에 선택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뽑힌

것이므로 선택된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이 선민됨의 도리이다. 선민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선택받은 자의 존재 의의를 갖는다.

셋째는 계약(브리트)이라는 개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에 의해 된 것이다.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출 19:6). 따라서 계약에 의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계약에 의한 규칙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신 7:10).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곧 나눔과 섬김의 삶이다. 세계 만민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갈등과 부조리가 해소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 소외자가 없는 행복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이다. 나눔과 섬김의 신앙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공의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더욱이 만물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 우리의 지상과제이다.